

김영아 동소설집

따라 배



연변인민출판사

김영아동소설집

딸 라 배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美元纸船: 朝鲜文 / 金影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8
ISBN 978-7-5449-0401-8

I. 美… II. 金… III. 儿童文学-短篇小说-作品集-中
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4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123750号

美元纸船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625 字数: 1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01-8 (民文)

版次: 2008年8月第1版

2008年8月第1次印刷

印数: 30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끈질긴 노력 탐구적시도

-김영의 아동소설집 《딸라배》를 보고서

김만석

들어가는 말

김영은 농민작가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소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농촌에서 잔뼈를 굳히면서 총명한 재질을 가지고 아동문학도서를 탐독하고 아동문학을 학습하면서 끈질긴 창작적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하여 김영은 일찍 《딱곰과 그의 벼들》이라는 아동소설집을 펴내고 이번에는 그후에 쓴 작품들을 한데 모아 아동소설집 《딸라배》를 내놓았다.

필자는 우선 일정한 탐구적시도를 보여주는 이번 작품집을 내놓은 김영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바이다.

그리고 필자는 “끈질긴 노력 탐구적시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김영의 아동소설을 조명하고 분석하면서 성과작



을 투시하여 경험을 추려보고 문제작을 투시하여 교훈을 찾아보려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아동소설은 인물성격을 부각하고 인물형상을 창조하는 아동문학의 기동장르이다.

김영은 국내외 아동소설을 널리 탐독하고 아동문학창작에서 탐구적자세를 취하고있다. 그 탐구는 내용과 형식에 걸쳐 전면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아동소설창작에서의 내용의 확충

아동소설에서의 내용이라면 주로는 제재와 주제를 두고 하는 말로 된다.

첫째, 아동소설의 제재 확충

김영은 우리 아동소설의 제재가 너무 협소하고 편협한 국면을 타개하여보려고 발 벗고 나선 사람이다.

1, 재래의 우리 소설의 제재는 주로는 나라안의 제재만을 취급하여왔었다. 그런데 김영은 이번 작품집에서 나라안의 제재는 물론 의식적으로 한국과 조선의 인물과 사건을 취급하면서 아동소설의 제재를 나라밖으로 확대하였다.

이를테면 “하늘방석”, “찬송가소리”, “검둥이” 같은 소설이 그러하다. 물론 이런 소설들에서 “검둥이”를 내놓고 아직까지는 성공한 작품은 별로 보이지 않으나 이런 제재의 확충은 김영의 새로운 추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2, 김영은 이번 소설집에서 우리 아동소설창작에서 처음으로 종교문제를 취급하여 이른바 금지구역을 타파하여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 작품들로는 “하늘방석”, “찬송가소리”, “외동오리” 등을 들수가 있다.



물론 이런 소설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지만 제재만은 새로운것이 틀림없다.

3, 김영은 이번 작품집에서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의 조기련애문제들을 취급하였다. 그런 작품들로는 “이른봄”, “외동오리”, “신음하는 새싹” 등이다. 이런 소설들은 아직 새로운 돌파를 보여주지는 못하고있지만 제재만은 우리 아동소설에서 그렇게 흔한 제재라고 할수가 없다.

4, 김영은 우리 동포사회의 비극을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비극속에서 사랑에 굶주리는 아이들의 비극적형상을 창조하였다. “딸라배”, “눈보라”, “사스”, “금빛목걸이” 등이 바로 그런 작품들이다.

이런 제재들은 2000년대의 새로운 제재들로서 김영이 성공한 작품들도 거개가 다 이런 제재들의 작품들이라는데 방점을 찍고싶다.

5, 김영은 이번 소설집에서 아이들의 일반생활과 인정세태를 취급한 작품도 엿보인다. 그런 소설들로는 “병어리철수”, “인형아기”, “백강아지” 등을 들수가 있다.

이렇게 《딸라배》가 포섭한 제재는 그 범위가 나라밖으로 확대되면서 동포사회의 비극으로부터 사춘기아이들의 조기련애문제 그리고 종교제재까지 다루어 아동소설의 제재가 한껏 확충되었다.

둘째, 아동소설의 주제 심화

작품의 주제는 작품의 령혼이라고들 한다. 작자가 이런 령혼을 바로잡지 못하면 작품은 실패하게 된다. 김영은 일정한 주제의식을 가진 작가로서 작품마다에서 자기의 주제가 초점을 이루도록 신경을 무척 쓰고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로무송출로 인한 가정의 파탄, 부모리혼의 풍파로 인한 아이들의 비극을 취급할 때 김영은 자기의 주제를 심화하기에 신경을 쓴 사람이다.



“팔라배”는 부모가 리혼하자 벌어지는 비극을 쓰고있다. 녀동생은 한국 간 엄마가 그리워 엄마가 보낸 100팔라짜리 돈으로 배를 접어서 두만강에 띄운다.

그 100팔라짜리의 가치를 아는 오빠는 그 돈을 건지러 두만강에 뛰어들었다가 죽고만다.

여기서 작자가 추구한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빠는 물에 빠져죽으려 일부러 들어간것은 결코 아니다. 오빠의 목적은 100팔라짜리 돈을 건지러 들어간것이다.

그 100팔라짜리 돈으로 만든 배가 물에 뜨지 않았더라면 오빠는 두만강에 안 들어갔을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서 그 100팔라로 배를 접어서 두만강에 띄웠을까? 그건 팔라보다도 한국에 간 엄마가 그리워 녀동생이 띄운것이다.

그렇다면 오빠의 죽음은 엄마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작자의 주제의식은 이처럼 비극적운명에 처한 오빠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예술적효과를 보고있다.

“금빛목걸이”에서 작자는 로씨야로 돈 벌러 갔다가 망하고 돌아온 아빠가 주인공 김영에게 4원짜리 가짜목걸이를 사온 사건을 취급하고있다.

작자는 이런 사건을 취급하면서 자기의 주제를 심화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보여주고있다. 작자는 주인공 김영의 생각을 빌어 “아, 4원짜리 목걸이! 아버지의 사랑과 녀원이 슴배인 4원짜리 목걸이, 4백, 4천, 아니 4만원짜리 목걸이라 해도 그 가치는 이 목걸이보다 못할것이다.”라고 피력하고있다.

작자는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의 가치에 방점을 찍고 초점을 맞추면서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것이지 사랑의 표징인 목걸이는 형식에 불과한 차요한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이처럼 김영은 주제의식을 선행시키면서 주제의 핵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초점을 형성하여 작품이 흐트러지는 경향을 미연에



바로잡으면서 주제를 심화시켰다.

아동소설창작에서의 형식적탐구

아동소설을 창작할 때 인물성격과 이야기의 변증법적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인물성격충돌로 빚어지는 궤적으로 된다. 다시말하면 인물성격충돌이 없으면 이야기는 형성될수가 없다. 는 말이다. 하기에 인물성격충돌은 제1차적인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성격충돌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반대로 인물성격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이 점을 망각하여서는 또 아니된다.

바로 이것이 인물성격과 이야기의 변증법적관계로 되는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바로 형식문제로 제기된다. 다시말하면 전통적인 슈제트구성을 하게 된다.

1. 작자는 작중인물들의 기조성격을 옹게 파악하고 이야기를 묘하게 펼치면서 슈제트구성에서 남다른 재간을 보여주고있다.

아동소설 “검둥이”에서 보면 검둥이는 두만강 저쪽에서 건너온 다른 나라의 개다. 이 개에 대한 태도에서 형 철호와 동생 철희의 성격충돌이 일어난다. 철희의 개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과 사랑은 철호의 유조건적인 개에 대한 부담과 배격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낸다.

그런 갈등속에서 개는 철희가 주는 월병과 우유사탕을 먹고 초기를 극복하게 된다. 철희는 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를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여 살린다. 마을사람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개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형제는 그 개를 멀리 도망가게 한다. 1년후 추운 겨울날 굶주린 그 개가 다시 철희네 문앞에 와서 얼어죽는다. 철호는 눈비석까지 세워준다.



이런 전통적인 슈제트구성방법으로 엮어진 복잡하고 극절적인 이야기는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구수하게 전개되어 아이들의 흥취를 무척 자아내고있다.

2. 작자는 슈제트구성에서 일정한 성공을 하였을뿐만아니라 슈제트회석화에서도 일정한 효과를 보고있다.

아동소설 “눈보라”는 흥미있는 소설이다. 주인공 리화는 양력설날 장사를 떠난 아빠 엄마가 돌아오는것을 마중하러 고개에 오른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따라 리화는 엄마 보고 전자퐁금을 사달라고 한것을 무척 후회한다. 만약 그런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이웃집에 맡기고 엄마 아빠는 장사를 떠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눈보라치는 고개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기다리다가 리화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죽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난 다시는 전자퐁금을 사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저승으로 가고만다.

사실 이 소설은 마치 실화와 같지만 주인공성격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설로 취급하게 된다.

여기에서 슈제트는 회석화되었지만 죽어가는 리화의 형상은 그토록 애절하고도 생동하게 독자들 눈앞에 나타나 독자들을 울리고있다.

3. 아동소설은 묘사체글이다. 묘사를 떠나서는 아동소설에서 인물성격을 부각할수가 없고 인물형상도 창조할수가 없다. 묘사에는 인물묘사와 환경묘사 및 장면묘사가 있다.

작자는 놀랄 정도의 묘사능력을 가지고 묘사재주를 우리 앞에 과시하고있다.

초상묘사의 일례로 “평화비둘기”에 나오는 한국할머니에 대한 묘사를 보기로 하자.

-백발이 다된 그 할머니의 몸은 왜소한데다가 사지를 움츠런



듯 둥그랗게 말려있어 마치 다 삭은 뿌리에 의지하여 몽탁하게 쪼그라든 고목 같았습니다. 흰 비단치마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서 있는 할머니의 대추씨 같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흐리터분하였지만 자꾸만 그 어딘가 초점을 찾아 강렬해지곤 하였습니다.

작자는 소설마다에서 주인공의 초상묘사를 의식적으로 진행하면서 독자들에게 주인공의 기조성격을 알려주고있다. 하여 작품을 다 보고나면 독자들의 눈앞에 주인공의 형상이 뚜렷이 떠오르는 예술적효과를 보고있다.

자연환경묘사의 일례로 “눈보라”의 한 장면을 보기로 하자.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고있습니다. 그 바람에 해님도 서산마루에 웅송그리고 앉아 오돌오돌 떨고있는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켜지르고 나간 전선대에서는 왕모기떼들이 울부짖는것처럼 듣기 아츠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행동묘사의 일례로 “사스”의 한 장면을 보기로 하자.

-아버지는 마치 불맛은 곰마냥 경충 뛰여일어나 두팔을 벌리고 급히 금성의 앞을 막아서며 “보지 마 보지 마”하고 황황히 금성의 기웃거리는 머리를 따라 연신 좌우로 몸을 기우뚱거렸어요. 그 모습은 몽골씨름군들의 서툰 춤 같아 사람들은 더욱 죽겠다고 웃어댔어요.

보는바와 같이 작자의 펜끝에서 환경은 보는듯 펼쳐지고 인물은 살아있는듯 안겨오고 행동은 동영상처럼 생동한것이다.

4. 작자의 끈질긴 추구와 의식적인 사색은 작품의 세부처리에서도 예술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딸라배”에서 작자는 작품의 환경전개부분을 면밀히 짜고들어 작가적인 숙련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작자는 처음에 바람에 훑날리는 락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락엽을 종이장으로 련상하게 한다. 다음 그 종이장을 이번에는 편지로 승화시킨다. 그 편지는 엄마의 편지를 상기하게 하는데 엄



마의 편지가 오지 않아 소식이 없다는것이다. 그다음 이 소식을 가지고 이번엔 전화를 끌어내여 엄마한테서는 전화도 오지 않는다는데로 집요하게 물고 나아갔다.

실로 오랜 창작경험을 가진 로련한 작가의 글솜씨가 보여지는 대목이다.

성공적인 인물형상

우리가 아동소설을 창작할 때 내용을 확충하고 형식을 혁신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물형상을 창조하려는데 있다.

이번 작품집에서 보면 “병어리철수”에서 나오는 철수의 형상, “검둥이”에서 나오는 철희의 형상, “사스”에서 나오는 금성의 형상, “금빛목걸이”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형상, “딸라배”에서 나오는 철이 형상은 비교적 성공한 예술적형상이라고 본다.

1. “병어리철수”에서 나오는 철수는 아동소설에서의 카시모도식(《빠리 노뜨르담》의 주인공의 이름)인물로 형상화되고있다.

철수는 “키는 꼬마기린처럼 경충했고 둥글넙직한 얼굴에 붓끝으로 그어놓은듯한 가느스름한 눈과 불룩한 입술은 어딘가 우악스럽고 심술궂은감”을 자아내는 그런 추한 인물이다.

철수는 문화혁명전에는 장난꾸러기, 심술꾸러기였으나 문화혁명후에 통아학교로 가서 공부하면서 그림 그리는 리상을 가지게 된다.

5학년때 내가 철수를 버스에서 만난다. 철수는 오줌이 마려워 버스에서 내리려 하는데 경각을 다투는 부상당한 경찰아저씨가 버스에 오른다. 일본일초를 다투는 판이다.

철수는 이런 상황에서 오줌 마려운것도 참고 몸부림치는 아저씨의 손을 꼬옥 잡고 조금이라도 아저씨의 아픔을 덜어드리려



고 무진 애를 쓴다.

철수는 나중에 오줌을 바지에 싸면서까지 아저씨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 결과 병원에 호송된 경찰아저씨는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철수는 바지에 오줌을 싼것으로 하여 뺨스에 앉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모진 꾸지람을 받는다.

이때 내가 가서 사실을 말하여 어머니는 너무 감동되어 “애야, 이 좋은 사회에서 너도 훌륭한 애로 자라나고있구나. 귀여운 애야, 날 용서하여다오”라고 한다.

여기서 작자는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남을 위하여 모지름을 쓴 마음이 아름다운 철수의 심미적형상을 창조하였다.

이런 형상은 우리 아동소설사에서 전춘식이 쓴 “숲속의 하얀 귀틀집”에 나오는 장할아버지의 형상과 함께 보기 드문 카시모도 식인물인것이다.

2. 작자는 최근에 비극적인 아동형상창조에 흥취를 가지고있다. 이를테면 “딸라배”에 나오는 철이, “눈보라”에 나오는 리화, “사스”에 나오는 금성이 형상 등이 바로 이런 형상이다.

그가운데서 “사스”에 나오는 금성이란 아이는 소학교 3학년 학생이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용돈 1원을 얻자고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아버지가 색정비디오를 구경하는것을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매맞는다.

도박 노는 엄마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맞았다면서 엄마에게 “왼손 엄지손가락과 식지로 동그라미를 지어보이고 오른손 식지를 그곳에 연신 꽂으며” 불부은 소리를 토한다

그러니 모였던 아주머니들로부터 “저 애가 별써”, “애구 기차라” 하는 비난을 당한다. 결국 어머니한테서도 용돈을 얻지 못한다.

부아가 난 금성이는 아버지를 파출소에 보고하려고까지 생각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것을 본 금성이는 아버지를 “류



땅”이라고 중얼거리며 저도 모르는 사이 자기 반 교실로 간다. 얼굴이 불덩이처럼 된다. 금성이는 사스에 걸리고만다.

금성이는 “난, 난 사스에 걸렸어요!”라고 세상에 향하여 공소한다. 가정의 무책임한 방임에 사스에 걸리고만 금성의 애절한 형상은 인상깊다. 특히 사회의 악영향에 오염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은 동정이 가는 성격으로 안겨온다.

3. “금빛목걸이”에 나오는 아버지의 형상은 간접적으로 창조한 형상이지만 성공한 인물이라는데서 주목을 끈다.

주인공 김옥의 아버지가 로씨야로 돈벌이 갔다가 돈 1천 벌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김옥이한테 4원짜리 가짜목걸이를 사온걸로부터 소설은 시작된다.

아버지에게서 목걸이를 가지고 좋아하던 김옥이, 그것이 가짜목걸이라는것을 알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김옥이다.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의 진심을 알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형상은 어머니의 말로써 간접적으로 부각된다.

-아버지는 로씨야장사에서 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자니 면목이 서지 않더라. 그래서 본전이나 뽕자고 몽골이구 신강이구 돌아다니며 별의별 고생을 다하였단다. 결국 러비를 겨우 장만해서 현성까지 와서 차표를 끊으니 돈 2원 밖에 남지 않았단다. 생각에는 다모토리나 하며 분한 마음을 삭일가 하는데 웬 애가 대합실잡화점에서 4원짜리 금목걸이를 사는걸 발견하였단다. 4원짜리라 하지만 아주 곱게 만든것이였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산 차표를 되물리고 남은 돈 2원을 합쳐서 그 목걸이를 사고나니 딸한테 아무것도 못 주는 그 아픈 마음이 얼마간 안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였단다...

여기서 장사에 밀렸으나 사랑에서는 리득을 본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소설은 주로 인물로 주제를 실현하기에 인물형상이 성공되면



소설도 성공되기 마련인것이다. 이번 소설집에서 이런 성공적인 작품의 출현은 정말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본다.

연구하여야 할 문제점들

1. 작자는 이번 소설집에 제일 처음으로 종교문제를 들고나왔다. 중국헌법에는 “종교신앙은 자유이다. 하지만 제창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놓았다.

그리고 “종교학”은 일종 과학이지만 “미신”은 반과학적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작가들이 종교적인 제재를 취급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다.

작자가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승인한다거나 작자가 “기독교신자는 선량하다”는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는 유물론자이고 아이들에게 과학을 전수하는 책임을 가진 작가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물론 종교제재를 취급하면서 유물론과 유심론의 투쟁을 이야기한다거나 종교가 성향하는 현실 같은것은 두루 배경으로 설정할수는 있으나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는 작자의 의도를 대변하는 것만큼 심분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2. 사춘기아이들의 조기연애를 취급할 때 새로운 돌파가 있어야 한다.

상징적인 제목을 가지고 쓴 아동소설 “이른봄”에서 작자는 사춘기아이들의 피치 못할 몽롱애정을 다루기에 무진 애를 썼다. 그런데 새로운 돌파는 가져오지 못하고말았다.

작자는 애자의 편지를 통하여 “한창 배우는 시절에 우리는 정력을 배움에 돌려야 한다고 본다”는데까지 이르고말았다. 이런 남들이 이미 제기한 해답인것으로 새로운 발견을 못하고말았다.



사춘기제재를 다룰 때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기 위하여 작품의 주제와는 거리가 먼 자연주의적인 세부를 도입하는것은 삼가할바라고 생각된다.

아동소설 “외동오리”에서 보면 유치원때부터 함께 자란 소학교 3학년생인 칠남이가 영희앞에서 옷을 훌랑 벗고 영희도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것은 납득이 아니된다.

칠남이는 그 이유를 “밤이면 말야, 엄마 아빠들과 형님 누나들이 이 내물에서 발가벗고 목욕해. 그런데 우리는 낮에도 안된다니 이상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작품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며 또한 독자들을 유혹하자는 목적이 확연히 들여다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에 어떤 소설들에서는 사춘기아이들의 몽유한것까지 들고나오는데 그것이 주제표현과 거리가 가까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자를 유혹하자는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김영의 아동소설집 《딸라배》에 대하여 두루 분석하여보았다.

김영은 아동소설창작에서 일정한 시도를 앞세우면서 슈제트 구성의 치밀성과 슈제트구성외의 회색화 그리고 묘사능력의 충분한 발휘로 하여 성공적인 인물형상을 창조하여냈다.

다시말하면 심령미의 대표자 철수의 미적인 형상,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철희의 선량한 형상, 아버지의 타락에 분개하고 반항하는 금성의 반항적인 형상, 딸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형상화된 아버지의 소박하고도 고상한 형상 등은 비교적 성공한 인물형상들로 안겨온다.



그러나 일정한 시도에서 창작실천을 할 때 정책계선과 아이들 실재를 떠난 결과 일부 문제작들을 빚어낸것 또한 사실로 되고있다. 즉 제재를 확대한다면서 취급한 종교문제를 다루면서 작가의 책임감문제를 홀시하였고 사춘기의 조기련애를 다룰 때 불필요한 자연주의적세부묘사를 도입하여 주제를 충격한 결과를 빚어내었다.

그러나 이번 작품집에서 일정한 성과작이 나타난것으로 하여 김영의 아동소설창작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고 필자는 본다.

끝으로 김영은 상기 장단점을 잘 가려보고 새로운 추구를 앞세우고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면서 보다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써내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바이다.

2008년 6월 24일



차례



김만석-머리글 · 끈질긴 노력 탐구적시도/ 1

평화비둘기/ 1

병어리철수/ 8

하늘방석/ 15

우박/ 22

검둥이/ 34

눈보라/ 45

이른봄/ 52

딸라배/ 62

백강아지/ 70

찬송가소리/ 76

